

갤러리 만난 호텔...작가들의 예술장터

시각예술프로젝트팀 '1995헤르츠'
금수장 객실 활용 '계림보부상'
47명 작가 217점 작품 전시·판매
21~27일 밤 9시까지 '야트페어'
아트테크, NFT 아트 강연도



47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미술장터가 열리는 금수장 호텔

광주의 오래된 호텔이 전시장으로 변신한다. 젊은 기획자들의 아이디어로 객실에서는 그림 장터가 펼쳐진다.

갤러리로 변신하는 공간은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수장(錦繡莊)'이다. 옛 광주시청 맞은 편에 1981년 문을 연 금수장은 나이 지긋한 광주 사람들라면 기억 하나쯤 갖고 있는 곳으로, 4년전부터는 객실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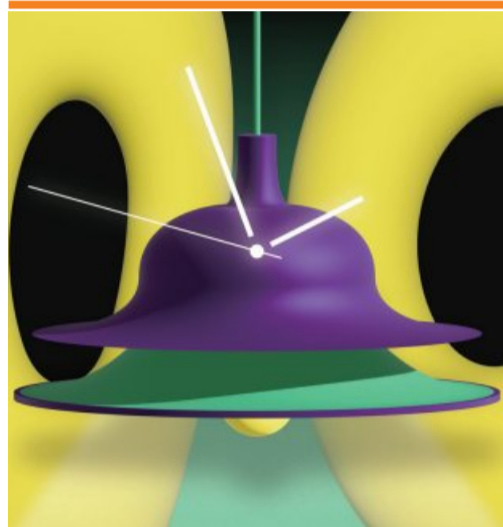
광주 시각예술 프로젝트팀 '1995헤르츠'가 주최하는 '2022 계림보부상:금수예술장'이 21일부터 27일까지 금수장호텔에서 열린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모한 '작가미술장터'에 선정된 프로젝트다.

'계림보부상'은 1995헤르츠의 기획자 4명(김소진·김규리·강소원·이소영)이 아이디어를 모은 프로젝트로 조선시대 보부상처럼 발품을 팔아 예술작품을 통해 지역작가와 시민을 연계한다는 의도를 담았다. 특히 직장인 등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오픈 시간을 오후 3시부터 밤 9시로 잡아 '야트페어' 형식으로 꾸민 게 특징이다.

행사에는 서울과 광주 등에서 활동해 작가 47명이 참여, 총 21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작가가 주류를 이루며 40대 작가로는 백상욱·서영기·유선진·서은선 등 4명이 참여한 다. 작품 판매 가격대는 20~30만원 선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8개의 빈 객실에서 열리는 '계림C'는 참여작가와 문필가들이 각자의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해 금수장 호텔에 축적된 이야기들을 미술작품, 시, 에세이, 편지, 비평 등을 창작하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기획이다. 윤상하·오성현·강부연·김은경·이소와·최지선·송미경·이선미 등 8명의 작가는 조선대 문예창작과 대학원생인 박지훈 등 8명의 작가와 매칭, 객실 하나 하나를 자신만의 색채로 꾸미며 작가 인터뷰 동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빈 객실 16개를 활용해 진행되는 '보부상'에는 39명의 작가들을 초청했다. 김 대표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을 사고 파는 데 낯설어하는



신선야작 '잠 못 드는 불면 괴물'

것에 주목했다. 그래서 작가 영상 촬영을 통해 작품의 의도를 들려주고, 아트상품도 판매하는 등 작가 팬덤을 만들어보려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작가 아트상품 등 로컬 브랜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양한 부대행사로 열린다. 'To be collector: 예술품의 소장 가치를 활용한 재테크' (25일 오후 3시~5시·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아트테크 열풍에 동참하고 싶은 초보 컬렉터를 위한 강연프로그램으로 우흥제 갤러리 이너프라운지 디렉터가 강사로 나선다.

'NFT 아트, A부터 Z까지: 기초와 실전' (25일 오후 7시~9시30분·온라인 화상회의)은 최근 미술계를 뜨겁게 달군 NFT 아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획으로 박이령(NFT Team Doci/DAO)씨가 강연한다. 그밖에 생중계로 펼쳐지는 '금수예술장 라이브 커머스'는 참가 작가 중 판매 경쟁력이 높은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 쇼호스트를 초대, 라이브로 진행되는 육션이다.

행사를 진행하는 '1995헤르츠'는 지역에서 재기 넘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던 '장물컬렉티브'의 김소진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그룹으로 프로젝트에



임수범 작 '드러난 세계'

따라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한다.

김 대표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건 지난해 장물컬렉티브 이름으로 '반도상가'에서 열었던 전시회가 인연이 됐다. 도시의 잊혀진 공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당시 전시 멘토로 참여했던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관계자를 만나면서 계림동과 금수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리를 시작했다. 자신에게는 낯선 곳이지만 부모님 세대에게는 추억이 깃든 곳이라는 게 흥미로웠고, 금수장의 레트로한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다.

이번에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과거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옛모습을 지키려 했고 금수장과 관련한 다양한 활용했다.

지난해 청주공예비엔날레 공모에서 '크래프트 투어리즘'으로 은상을 수상하고 목포 작산가옥을 모티브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1995헤르츠'는 앞으로 발길 닿는 곳에서 '계림동 보부상' 프로젝트를 이어가려한다. /김미은 기자 mekim@

‘자연을 통한 인간성 회복’

강태웅 초대전, 10월 16일까지 백민미술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미술관인 보성 백민미술관은 아름다운 절 대원사 가는 길에 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나들이길에 함께 하면 좋을 전시회가 열린다.

백민미술관이 서양화가 강태웅 작가 초대전을 오는 10월16일까지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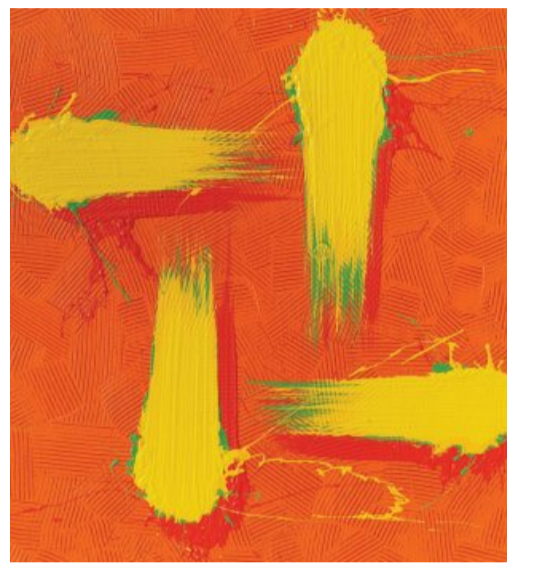
'생동(生動)·회복(回復)/Movement Recover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생성되는 긍정의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35점을 선보인다.

전시작은 최근 강 작가가 주 테마로 잡고 있는 '자연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풀어낸 그림들이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자연과의 교감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느낌을 화면에 옮겨온 작가는 응집된 에너지의 흐름을 강렬하게 표현한 근작과 함께 드로잉 작품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작가의 '행위'가 중요한 작업 요소로 작용한다. 다양한 몸짓이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을 아우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최근 작업인 'Movement' 연작은 중층 구조의 화면과 반복되는 붓질을 그대로 드러내며 내연과 외연, 음과 양의 조화, 자연과의 소통을 추구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인간성 회복을 위한 치유와 긍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기원하는 작가의 희망을 담은 작품들이다.

중앙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부름스버그 대학원을 졸업한 강 작가는 52회의



'Movement 2237'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현재 중앙대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재직중이다.

평론가 이재철은 "다채로운 생명 현상과 이로 부터 생성되는 고도의 존재론적 사유를 추구하는 강태웅의 회화는 고유의 스타일 안에서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며 "작품의 선은 참신하기 그지없으며, 색들은 천연의 살아있는 권능과 관능을 동시에 발산하고 점과 선의 유기적 조합이 만들어 낸 그의 그림은 자연의 오탁하고 맑은 정신성을 깨닫는다"고 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영주 작 '젓생 막걸리에 나른한 배'

드영미술관,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참가자 모집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 상영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2022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Fall in Deyoung!'의 두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30일 열리는 '영화 속 숨바꼭질'은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영화를 통해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편견을 딛고 인기 있는 예술 장르 중 하나

나로 자리잡은 그래피티 아트가 어떤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지 알아보는 기획이다.

함께 감상할 영화는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가 메가폰을 잡은 다큐멘터리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다. 영화 관람후 다양한 영화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조대영(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드영미술관에서 양 나희 작가를 초대해 진행 중인 2022 청년작가 공



영화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

모션전전 'Useless... but Beautiful'전(10월2일까지)을 전시 해설사와 함께 감상하는 시간도 갖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독도·섬진강·무등산...그리다, 그리워하다

광주사생회 정기전시회, 15~21일 무등갤러리

지난 1984년 7월 창립한 광주사생회는 현장 스케치의 생동감을 작품으로 구현해왔다. 그해 8월 거문도도 첫 단체 스케치전을 나간 후 1986년 가톨릭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었고, 매년 합동스케치와 회원전을 개최했다.

화구를 들고 자연으로 나가 현장의 풍경을 화폭에 옮기는 일은 언제나 설렘이었다. 완도, 법성포, 여수 돌산 등 전남지역은 물론 설악산, 대전 계룡산 등 전국으로 스케치 여행을 떠났고, 지난 2006년부터는 6대 광역시 합동 스케치전을 열기도 하는 등 활동폭을 넓혀갔다.

광주사생회(회장 김영주) 37회 정기전시회가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그리다, 그리워하다 II'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50여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들은 독도, 섬진강, 월출산, 백암산, 무등

산, 신안포구 등의 풍경과 흐드러지게 핀 들꽃,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꽃과 나무 등을 화폭에 담았다. 참여작가는 조규일·이우진·서봉한·문명호·정성복·정흥기·임병남·신선·이현숙·김금란 등이다

작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월레 야의 스케치' 등을 진행했다. 월출산 성전마을, 낭만의 섬 여수 낭도 등으로 떠나 자연을 화폭에 담았고, 해남윤씨 종가부터 땅끝해변으로 1박 2일 스케치 여행에 나서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팬데믹으로 중지했던 '6대 광역시 사생대회'도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 제목에는 '광주 사생회'를 이끌어 많은 작품을 남기고 올 초 세상을 떠난 유태환 전 회장을 '그리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 초대일시 15일 오후 5시30분. /김미은 기자 mekim@

겨울-인내, 봄-염원, 여름-치유, 가을-회복...그리고 희망

광주음악협회 음악4계 연주회... 16일 금호아트홀

'음악으로 만나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광주음악협회(회장 윤영문)가 주관하는 '2022 희망을 그리다' 광주음악4계 연주회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음악협회 임원진과 음악회원으로 구성된 광주음악 4계는 '겨울(인내)'과 '봄(염원)', '여름(치유)', '가을(회복)', 'Epilogue 그리고 희망' 등 총 5개 색선의 극적인 기법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은 김찬경이 기획을 맡았으며 소프라노 김미옥이 신곡 해설을 맡는다.

먼저 '겨울' 색선에서는 김진선 작곡가의 신곡 '첫눈 내리는 날에 쓰는 편지'를 시작으로 플루티스트 배혜경, 첼리스트 진채리, 피아니스트 김연이 배버 '피아노, 첼로, 플루트를 위한 트리오 G

단조'를 연주한다. 이어 '봄' 색선에서는 소프라노 박경숙, 메조소프라노 임선아가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을 바리톤 윤명재가 '강변 아리랑'과 '아빠의 손을 잡고 걸으면'을 선보인다.

'가을' 무대는 작곡가 김소정이 임원식 시인의 시 '피고 지고 지고 피고'에 곡을 붙인 신곡을 소프라노 김선희가 부르며로 시작해 신동민이 작곡한 '현악 4중주를 위한 어린시절 사계'에 대한 에세이 중 '여름'을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한효선, 비올리스트 신정문, 첼리스트 박효은이 연주한다.

회복을 의미하는 '가을' 색선에서는 피아니스트 주소영과 김은애가 쇼스타코비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협주곡 가단조'를 연주한다.



김선희

김찬경

마지막 에필로그 색선에서는 테너 우중석·박성철, 바리톤 박병국·이준용 등 4명의 솔리스트가 '우정의 노래' 무대를 선보이며 작곡가 최수희의 '희망의 날'이 연주된다. 이번 공연은 2022 광주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 기획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2 ACC 사진 공모전' 14일~10월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의 다양한 모습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ACC가 14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공모하는 이야기가 있는 '2022 ACC 사진 공모전'이 그것. 공통주제는 나에게 'ACC는 다'라는 한줄 문구를 토대로 ACC를 모티브로 한 풍경이나 감성 또는 전시, 공연 등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한 사람 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11월 11일 모두 19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 누리소통망(SNS)의 '좋아요' 건수를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개관 7주년을 기념해 광주송정역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선보이며 ACC 홍보 사진으로도 활용된다. 최우수상(1점, 100만원), 우수상(3점, 50만원), 장려상(5점, 30만원) 등이 수여된다. 응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ACC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